

기혼직장여성의 일상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 :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최은주* · 김춘경**

초 록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일상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 일 만족도 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 패널조사 5차(2015년도) 자료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일 만족도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기혼이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3가지 학력수준, 즉 고등학교 미만, 고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상생활스트레스, 우울과 일 만족도는 직장여성의 학력수준 구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이 낮게 나타났으며, 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의 주요변인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고졸 미만의 대상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상관이 있었지만, 일 만족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학력수준이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상관이 있었고, 일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셋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도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구대상 중 최종학력이 고졸인 여성에서만 일 만족도가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연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기혼 직장여성, 학력수준,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일 만족도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외래교수 (ejchoia@naver.com)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교수 / 교신저자 (kckyung@knu.ac.kr)

I. 서론 및 문제제기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 낮은 출산율과 만혼 등의 인구학적 변동으로 노동참여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5)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25세 이상 여성인구 1841만 8천 명 중 대학 이상 졸업인구는 663만9천명(36.0%)을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여성 인구 632만4천명(34.3%)을 추월한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이 고학력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 이상 졸업인구의 남녀 간 구성비 차이도 2010년 10.8%포인트에서 2015년 9.6%포인트로 감소하였다.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기혼 직장여성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학력 또한 향상되어 대졸이상의 학위소지자들의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2004년 34.9%에서 2015년 38.9%까지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5).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연령도 높고 경력도 길고 학력수준이 높으나 반면에 희망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포기의 가능성이 높고, 일 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며, 고학력 직장여성의 짧은 근속년수와 업무숙련을 어렵게 만들어 여성들의 일 만족도 또한 낮아질 수 있다. 기혼여성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출산 직전의 소득이 높고,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조직 몰입도가 높은 여성들이 취업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홍, 2003). 최근 능력위주의 요소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연공 중심의 보수나 인사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한된 직종에 한해서만 고학력 여성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여성들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직장 내 대인관계 적응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연령, 소득, 학력,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는 보고가 있다(안윤숙 외, 2016).

또한, 기혼여성의 학력이 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서로 불일치하여, 직장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순안·김승용, 2011)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는 연구가 함께 존재하고 있으므로(김일호·천희란, 2009) 이러한 점

들을 염두에 두면서 학력수준과 정신건강, 일 만족도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지식정보 사회화에서 여성인력은 더욱 요구될 것이며, 여성들의 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은 여성의 학력수준을 고려해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기혼 직장여성은 가사일, 자녀양육, 직장에서의 이중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성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적고 역할 과부하를 경험하며 통계청(2015)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기혼 직장여성들은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만성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향이 잦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직장생활과 가사, 양육을 이중으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일 외에도 아내, 어머니 등의 역할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고, 직장 여성의 삶의 만족이나 심리적 안녕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일상생활 만족을 위한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강영희,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서 일 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 일 만족도에 의한 일상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직장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혼 직장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일 만족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직장여성의 학력수준 별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직장여성과 학력

현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임금에서의 불평등 구조를 학력수준 혹은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 증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어 왔다.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불평등은 흔히 선별이론에 따른 것이며,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화, 숙련형성을 통한 생산성과 임금보상의 관계구조는 인적자본이론에 따른 것이다. 생산성 증가에 초점을 두고 근로자들은 학력수준에 해당하는 특정한 경력단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의 특혜를 받게 된다. 즉, 대학교를 졸업한 근로자들은 고용되었을 때 당시에 같은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한 이와 같은 이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별도구로서의 학력수준은 임금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강호, 2009). 학력이 높은 여성들은 일자리 선택에서 남녀차별이 적고 결혼, 출산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직종을 구하기 위해 전문직이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것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보다 특정 직업에 가치를 두는 점에서 학력효과가 높지만, 소득측면에서는 남성에게서 학력의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성문주, 2009). 이처럼 여성은 학력에 따라 직업 선호가 다르고, 직업에서 얻는 가치도 달리 추구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 미국은 고학력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노동시장 복귀가 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재취업 시기는 학력에 상관없이 오히려 고학력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더 늦게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노동 시장에서 고학력 여성들에게 접근 가능한 직종이 다양하지 않으며 이들의 취업욕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오은진·민현주·김지현, 2009). 또한, 최고의 학력이 있어야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을 제외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학력을 유지하고 있고, 경력개발의지, 자존감, 직업만족도 등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었으나, 직무만족은 고졸자가 가장 높다는

결과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정책 서비스의 질이 여성 노동공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의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이유진 · 김의준, 2014). 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인력의 학력수준에 따른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기술하였다(김인숙 · 김병숙, 2002).

2. 일상생활 스트레스

취업과 동시에 가정 내에서의 역할수행과 직장일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직장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가사와 육아 스트레스는 물론 직장스트레스까지 감당하면서 직장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는 보편화되고 심화되어 가고 있다(Kraaij, Garnefski & Maes, 2002).

스트레스는 어떤 요구적 상황이 개인의 대응 능력에 부담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종류의 경험(박경, 2004)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요인에는 생활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일, 만성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는 특수상황,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이중역할을 담당하는 기혼 직장여성의 직업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정혜선 외, 2001). 또한, 기혼 직장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직장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근무환경에 만족할수록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며 조직유효성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정 · 오재림, 2010). 일상 스트레스는 생활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소진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업성취에 저해요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건강에 주요 위협요인이 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우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스트레스를 우울 예측의 주요변인으로 보았다(Girgus & Seligman, 1992). 주요 생활사건에서의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

는데, 국내의 연구들 중에는 45세 이후의 중년 여성들에게서 스트레스 생활 사건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많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김영희, 1992; 강석임·전희정, 2013).

3. 스트레스와 우울

우울은 부정적인 정신건강 결과 중에서 대표적인 증상으로, 세계질병부담에서 가장 사회적 부담이 높은 질환이며(Yearwood & Siantz, 2010), 근로자의 우울경험은 직장 혹은 직업에 대한 불만과 분노,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 대인관계 및 가족갈등, 사회적 위축, 자살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과 같은 정신질환에 취약하고,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우울정도의 개인차 변인이 존재하며,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는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취약성 요인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매개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는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에 따른 정신, 신체적 질환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 된다(홍경자 외, 2002). 또한 우울은 학력수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한선영, 2013),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높은 우울감을 가진다는 박혜순(199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력수준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장여성의 경우에는 일-가정 갈등에 의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일만족도가 낮은 경우 노동 근로자들은 우울감을 가진다는 결과에서도(추상효 외, 2010; 이의철 외, 2008; 김수연 외, 2002) 볼 수 있듯이 직장여성들의 일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일상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개효과가 있는지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스트레스와 우울 간 상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다 우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들도 있다(민성길·남궁기·이호영, 1990). 어떤 여성들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별 문제없이 극복하는데 반해, 다른 여성들은 스트레스의

크기와 정도에 상관없이 과도하게 압도당하여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McCubbin & McCubbin, 1996). 이러한 점으로 보아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 매개하는 변인이 존재하는 것이 시사되고 있다.

4. 일 만족도 효과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해왔고, 다양한 매개변인 중에서도 직장여성에게 일 만족도는 일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 만족도의 개념은 일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태도, 욕구충족 등이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내면적 감정 상태로 주관적이며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이슬기, 2015). 일 만족도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자기의 맡겨진 업무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 경험, 보상, 비용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Cordner & Scarborough, 2010). Hoppock의 일 만족도 이론에서 일에 대한 만족도는 직장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와 생리 및 환경적인 상황을 통합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개인의 직무환경, 직무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상태라고 표현하였으며, 구성원에게 맡겨져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라고도 하였다(McCauley & John, 1958).

일 만족도는 어떤 사람이 그들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며(Spector, 1997), 현재의 일이나 직무 수행 결과로 인해 만족하는 긍정적인 정서 부분과 유쾌한 상태라고 한다(이상곤 · 함영림, 2014). 일 만족도는 종사자가 일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 욕구, 정신, 태도 등의 감정과 정서적 상태를 통합하는 것이며, 조직에서 종사자가 담당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그 조직의 업무성과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은희 · 이은미, 2012). 특히, 이러한 조직의 직무만족도는 학력 불일치와 매우 관련이 깊은데(Frei & Sousa-Poza, 2011; 김중우 · 최수정, · 김경인, 2014), 즉, 학력 수준에 따라 직무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력 수준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lackmore(2007)에 의하면 직무에 대한 긴장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일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우울감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을 가진 여성이 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우울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연은모·최효식 2014; Quick & Tetrick, 2003). 또한, 직장여성이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감과 불안에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주어진 일에 대해 만족하였을 때 부정적인 정서반응이 감소하여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오경자·하은혜, 1999; 연은모·최효식, 2014). 일 만족은 소진 및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육체적, 정신적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고 스트레스 및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력수준을 구분하여 일 만족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여성가족 패널조사 5차 자료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 직장여성 1,7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설계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의 학력수준을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을 학력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고졸미만인 기혼 직장여성은 273명(15.3%), 고졸인 여성은 773명(43.4%), 대졸이상인 여성은 732명(41.1%)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학력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X^2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통계값은 860.0(df=76, $p<.05$)로 연령에 따라 학력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직종에 따른 학력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X^2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통계값은 814.6(df=16, $p<.05$)로 직종에 따라서도 학력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소득에 따른 학력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X^2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통계값은 411.6(df=236, $p < .05$)로 소득에 따라서도 학력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학력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X^2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통계값은 494.3(df=6, $p < .05$)로 연령에 따라서도 학력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변인들은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 | 학력 수준 | | | X ² | |
|-----------------|----------------|------------|-----------|-----------|----------------|--------|
| | | 전체(%) | 고졸미만 | 고졸 | | 대졸이상 |
| 연령 | 25-35 | 146(8.2) | 4 | 46 | 96 | 860.0* |
| | 36-45 | 795(44.7) | 17 | 357 | 421 | |
| | 46-55 | 613(34.4) | 98 | 318 | 197 | |
| | 56-65 | 224(12.5) | 154 | 52 | 18 | |
| 직종 | 관리자 | 5(0.3) | 0 | 1 | 4 | 814.6* |
| | 전문직 | 496(27.8) | 2 | 89 | 405 | |
| | 사무직 | 260(14.6) | 2 | 104 | 154 | |
| | 서비스 | 364(20.4) | 79 | 226 | 59 | |
| | 판매직 | 250(14.0) | 37 | 153 | 60 | |
| | 농림어업 | 47(2.6) | 31 | 11 | 5 | |
| | 기능직 | 75(4.2) | 21 | 35 | 19 | |
| | 장치기계 | 77(4.3) | 17 | 54 | 6 | |
| | 단순노무 | 204(11.4) | 84 | 100 | 20 | |
| 평균 소득 (만) | ~100이하 | 586(32.9) | 137 | 272 | 177 | 411.6* |
| | 101~200 | 1035(58.2) | 303 | 406 | 326 | |
| | 201~300 | 183(10.2) | 6 | 63 | 114 | |
| | 301~400 | 87(4.9) | 4 | 12 | 71 | |
| | 401~500 | 46(2.6) | 0 | 13 | 33 | |
| | 500이상 | 18(1.0) | 0 | 7 | 11 | |
| 자녀 연령 | 18세이하 | 952(53.5) | 31 | 386 | 535 | 494.3* |
| | 미혼성인 | 573(32.2) | 224 | 247 | 102 | |
| | 18세이하와 미혼성인 | 253(14.2) | 18 | 140 | 95 | |
| | 총(%) | 1778(100) | 273(15.3) | 773(43.4) | 732(41.1) | |

* $p < .05$

2. 측정도구

1) 일상생활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2011년 서울시 정신보건 인식조사에 포함된 10개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체 문항에서 6번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Recode 후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문항내용은 ‘①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②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③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⑤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⑥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⑦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등을 포함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2) 우울

여성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Radloff(1977)의 CES-D 척도 한국판으로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10개의 문항 중에서 문항 내적 일치도가 낮은 5번, 8번 문항을 제거하고 8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각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Recode 후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함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문항에 포함된 내용은 ‘지난 1주 동안 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② 무슨 일을 하든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③ 상당히 우울했다. ④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⑤ 두려움을 느꼈다. ⑥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⑦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⑧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신뢰도는 .88이었다.

3) 일 만족도

일 만족도를 위한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임금 또는 소득수준, 고용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복리후생, 성과에 대한 인정, 전반적인 일의 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매우 만족에 1점에서 매우 불만족에 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Recode 후 며, 문항에 포함된 내용은 '① 임금 또는 소득수준, ② 고용의 안정성, ③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④ 근로 환경, ⑤ 근로시간, ⑥ 개인의 발전 가능성, ⑦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⑧ 복리후생, ⑨ 성과에 대한 인정, ⑩ 전반적인 일의 만족도' 등이고,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학력수준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χ^2)을 사용하였으며, 학력수준별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학력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학력수준별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영향력 검정과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1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스트레스가 매개변수(M)인 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고, 2 단계에서는 독립변수(X)인 스트레스가 종속변수(Y)인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였다. 3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였다. 나아가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완전 혹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Ⅲ. 분석결과

1. 직장여성의 학력수준별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일 만족도 간 차이검증

기혼 직장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른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일 만족도 간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모든 대상에서 변인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즉 학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즉, 일상적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일 만족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에 따른 차이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학력수준에 따른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일 만족도 간 차이검증

| | 고졸미만 | 고졸 | 전문대졸이상 | F |
|----------|-----------------|-----------------|-----------------|--------|
| | M(SD) | M(SD) | M(SD) | |
| 일상생활스트레스 | 14.60 (2.93) | 14.32 (3.12) | 13.88 (2.88) | 7.10* |
| 우울 | 10.87 (3.75) | 10.15 (3.19) | 9.91 (2.89) | 9.03* |
| 일 만족도 | 30.21 (4.51) | 31.89 (5.26) | 34.80 (5.56) | 96.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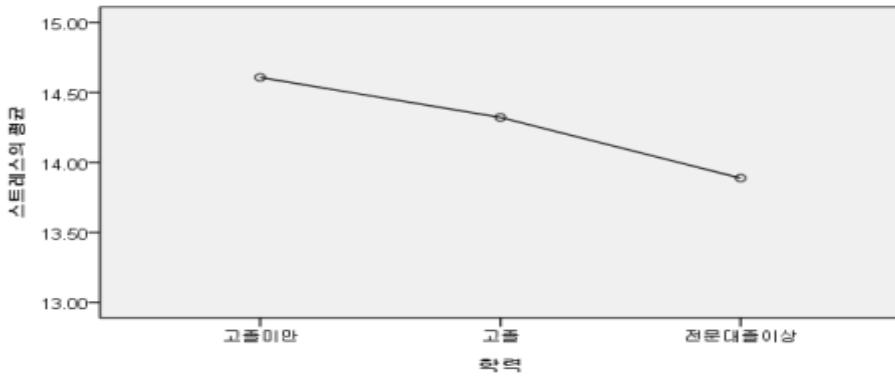
* $p < .05$

사후분석을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력수준에 따른 구분은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학력이 고졸미만인 대상과 고졸인 대상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대졸이상 대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졸 이상인 여성들이 일상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할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3〉 및 〈그림 1〉과 같다.

〈표 3〉 학력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변인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 학력(I) | 학력(J) | 평균차(I-J) | 95% 신뢰구간 | |
|-------|---------|----------|----------|------|
| | | | 하한값 | 상한값 |
| 고졸미만 | 고졸 | .28 | -.23 | .80 |
| | 전문대졸 이상 | .72* | .19 | 1.24 |
| 고졸 | 전문대졸 이상 | .43* | .05 | .81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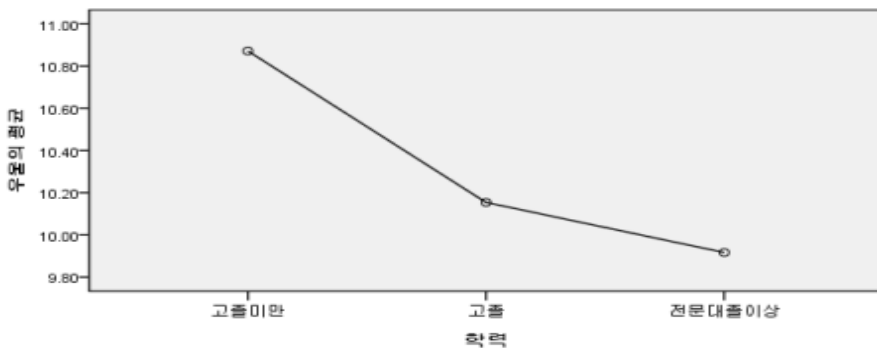
[그림1] 학력수준에 따른 일상 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우울변인에 대한 사후분석결과에서는 학력이 고졸미만인 대상과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인 대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가장 낮은 고졸미만인 대상에서 다른 두 대상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수준에서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4> 및 <그림2>와 같다.

<표 4> 학력수준에 따른 우울 변인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 학력(I) | 학력(J) | 평균차(I-J) | 95% 신뢰구간 | |
|-------|--------|----------|----------|------|
| | | | 하한값 | 상한값 |
| 고졸미만 | 고졸 | .71* | .17 | 1.26 |
| | 전문대졸이상 | .95* | .40 | 1.50 |
| 고졸 | 전문대졸이상 | .23 | -.16 | .63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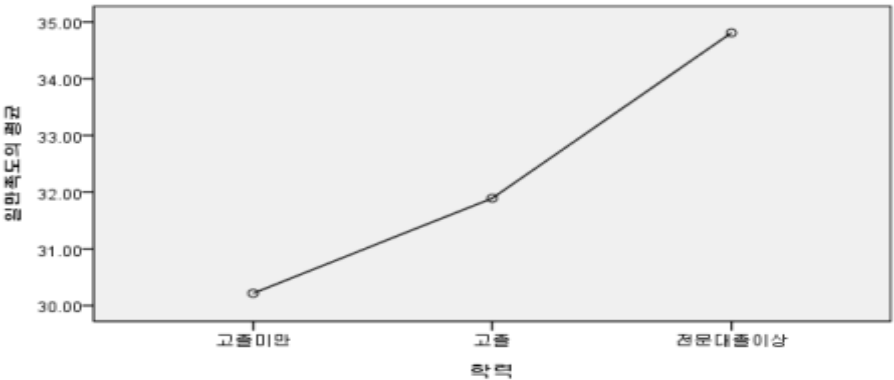
[그림 2] 학력수준에 따른 우울 수준의 비교

또한, 일 만족도 변인에서는 각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각 주요 변인에 대한 학력수준별 대상들의 사후검정 결과를 <표5> 및 <그림3> 으로 제시하였다.

<표 5> 학력수준에 따른 일 만족도 변인의 사후비교분석(Scheffe)

| 학력(I) | 학력(J) | 평균차(I-J) | 95% 신뢰구간 | |
|-------|---------|----------|----------|-------|
| | | | 하한값 | 상한값 |
| 고졸 미만 | 고졸 | -1.67* | -2.58 | -.76 |
| | 전문대졸 이상 | -4.59* | -5.51 | -3.67 |
| 고졸 | 전문대졸 이상 | -2.91* | -3.58 | -2.24 |

* $p < .05$



[그림 3] 학력수준에 따른 일 만족도 수준의 비교

2. 직장여성의 학력수준별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일 만족도의 상관분석

<표6>,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대상 전체에 대해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r = .3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일 만족도($r = -.19$)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울과 일 만족도($r = -.17$)도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은 서로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며, 스트레스와 우울로 인해서 일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장여성의 학력수준이 고등학교 미만인 집단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r = .4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일 만족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일 만족도도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일 만족도 수준은 스트레스와 우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직장여성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집단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r = .3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일 만족도($r = -.18$)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일 만족도($r = -.16$)도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수준이 전문대졸업 이상인 집단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r = -.30$)은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이 있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일 만족도($r = -.19$)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만족도와 우울($r = -.08$)도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일 만족도 수준은 낮아질 수 있고, 일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일 만족도 수준 간 상관관계(전체 및 고졸 미만 집단)

| 측정변인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일 만족도 |
|-----------|-----------|------|-------|
| 일상생활 스트레스 | 1 | .33* | -.19* |
| 우울 | .40* | 1 | -.13* |
| 일 만족도 | -.10 | -.08 | 1 |

※ 대각선 위는 전체대상이며, 대각선 아래는 고졸미만집단임

* $p < .05$

〈표 7〉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일 만족도 수준 간 상관관계(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 집단)

| 측정변인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일 만족도 |
|-----------|-----------|-------|-------|
| 일상생활 스트레스 | 1 | .31* | -.19* |
| 우울 | .32* | 1 | -.08* |
| 일 만족도 | -.18* | -.16* | 1 |

※ 대각선 위는 고졸 집단이며, 대각선 아래는 전문대졸 이상 집단임

* $p < .05$

3. 학력수준별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만족도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표 8>과 같이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인들을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평균소득(월), 자녀연령(미취학자녀, 초중고, 미혼성인자녀), 직종(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단순노무)을 포함하여 4개 변수를 통제하였고, 이 중 자녀구분과 직종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8> 통제변수

| 변수명 | 변수 정의 | 비고 |
|---------|--|----------|
| 연령 | | 연속형 변수 |
| 평균소득(월) | | 연속형 변수 |
| 자녀구분 | 미취학자녀, 초중고, 미혼성인 | 더미변수로 변환 |
| 직종 | 전문직(관리자 포함),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단순노무) | 더미변수로 변환 |

기혼 직장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대상 전체에서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1단계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p < .05$)는 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beta = -.15$) 일 만족도 수준이 낮아졌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일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p < .05$), 일상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아지고($\beta = .33$),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이었다. 단계 3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일 만족도에 의해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영향을 미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독립변수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p < .05$) 또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beta = .34$)가 높을수록 일 만족도 수준($\beta = -.04$)는 낮아지고, 우울은 높아지며,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3%이었다.

〈표 9〉 일 만족도 매개효과

| 집단 | 단계 | 변인 | B | β | t | R^2 | F |
|------|----|-------------------|------|---------|---------|-------|--------|
| 전체 | 1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일 만족도 | -.28 | -.15 | -7.37** | .24 | 43.45* |
| | 2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35 | .33 | 15.06** | .12 | 19.37* |
| | 3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34 | .32 | 14.37** | .13 | 18.63* |
| | | 일 만족도 | -.04 | -.07 | -2.81** | | |
| 1 집단 | 1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일 만족도 | -.13 | -.08 | -1.37 | .06 | 1.54 |
| | 2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50 | .39 | 6.80** | .19 | 5.27* |
| | 3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50 | .39 | 6.74** | .19 | 4.86* |
| | | 일 만족도 | -.02 | -.02 | -.39 | | |
| 2 집단 | 1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일 만족도 | -.28 | -.17 | -5.01** | .14 | 10.04* |
| | 2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34 | .33 | 9.67** | .12 | 8.47* |
| | 3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31 | .31 | 8.99** | .14 | 8.72* |
| | | 일 만족도 | -.07 | -.12 | -3.26** | | |
| 3 집단 | 1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일 만족도 | -.33 | -.17 | -5.23** | .22 | 16.41* |
| | 2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31 | .31 | 8.81** | .11 | 6.93* |
| | 3 | 일상생활 스트레스 → 우울 | .30 | .30 | 8.48** | .11 | 6.48* |
| | | 일 만족도 | -.01 | -.03 | -.83 | | |

※ 1 집단은 고졸미만, 2 집단은 고졸, 3 집단은 전문대졸 이상을 의미함.

* $p < .05$, ** $p < .001$

학력이 고졸미만인 집단에서는, 단계 1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p > .05$).

다음으로, 여성의 학력이 고졸인 집단에서는 1단계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p < .05$)는 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beta = -.17$) 일 만족도 수준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일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p < .05$), 일상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아지고($\beta = .33$),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이었다. 단계 3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일 만족도에 의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영향을 미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beta = .31$)가 높을수록 일 만족도 수준($\beta = -.12$)는 낮아지고, 우울 수준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4%이었다.

여성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대상에서는 1 단계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p < .05$)는 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beta = -.17$) 일 만족도 수준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일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단계 2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p < .05$), 일상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beta = .31$),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1%이었다. 반면, 단계 3에서는 일 만족도에 의한 매개효과는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학력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일 만족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검증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고졸미만인 대상과 다른 두 집단 즉,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인 대상과는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고졸집단과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 차이는 통계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고졸미만인 여성 대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른 두 집단과의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김은정 외(1999)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력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고졸인 대상과 전문대졸인 대상 간에는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만족도 변인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일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류임량(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 만족도 요인은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서 여성의 심리적 안녕을 촉진시키고, 여성이 일을 원하는 경우라면 더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변인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양질의 일은 일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여성들이 일을 하고, 일로 인한 만족감은 일-가정전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관심을 가져야할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우울감등의 심리적 요인이 일 만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여성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정적인 관계에 있는 변인임을 제시하였고, 일에 대한 만족감으로 일상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로 제안하였다(Jonathan et, al. 2012). 따라서 직장여성의 학력, 심리적 요인, 일 만족도는 서로 관련 있는 변인이므로 효과적으로 조절된다면 일-가정 전이에 긍정적인 대처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연구대상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은 유의수준 .05에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우울과 일 만족도와와의 상관은 유의수준 .05에서 부적 상관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우울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여성의 학력수준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미만인 대

상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일 만족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에 속하는 대상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인 대상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은 유의수준 .05에서 정적상관이 있었고, 우울과 일 만족도는 유의수준 .05에서 부적 상관이었다.

셋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일 만족도 매개변인의 효과검증에서는 연구대상 여성의 최종학력이 고졸인 대상에서만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는 매개변인으로서 효과가 있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일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직무만족도가 낮아질수록 더 높은 우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이의철 외, 2008; 장재원 · 이준상, 2013)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 중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 여성들의 경우,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 만족도가 낮아졌고, 일상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일 만족도의 매개변인으로서 효과는 통계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속하는 대상들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발생을 감소시키는 다른 변인을 탐색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일 만족도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최수찬 외(2008)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한 만성적 스트레스 결과물로서 직무소진을 설명하고 있다. 직무소진에 대한 스트레스 분석에서 직무복잡성과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을 포함하고 있고,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직무소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와 같이 직장여성에게는 일 만족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 만족도를 저해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학력향상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장여성의 학력수준을 구분하여 여성의 정신건강의 주요변인을 분석하였고, 또한, 대학 이상의 고학력 직장여성들은 일 만족도 변인의 매개효과 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일-가정 갈등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부담감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손영미 · 박정열 · 전은선, 2015). 즉, 여성들이 일 지향성이 더 높아서 그들에게 일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된 원천이자 주요 생애목표로 기능하기도 하고, 여성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과 동시에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높다. 기혼 직장여성의 직장-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정신건강이나 직무만족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정 영역이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기혼직장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 만족도는 감소하고 일 만족도는 증가한다(유성경 · 임영선, 2016)는 결과에서 밝힌 경향과 같은 취지로 일 만족도를 매개로 일상 스트레스 및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은 여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 만족도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 때 높게 나타나고, 사회의 지지와 공정성과 관련 있는데 사회적 지지는 업무능력에 대한 인정, 자기 효능감, 사회적 정체감, 효율적인 업무수행동과 연관되어 있다. 즉 이것은 직장여성의 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여성들의 안녕에 기여하는 사회의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가 얼마나 긍정적인지에 달려있고, 긍정적으로 인지한 직장여성들은 일에 몰입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역할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의 공정성은 업무의 성공적 수행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공정하다고 인지될 때 개인적 업무수행에 있어 자신의 역할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직장 동료들과도 협력하게 되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위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제한점을 밝혀둔다. 여성가족패널 자료에 의한 분석으로서 남성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고, 주어진 설문분석에 의한 것으로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우울, 일 만

족도의 변화량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학력수준에 따라서도 만족하는 요인에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요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하여, 기혼여성의 일과 생활만족은 연령, 평균소득, 자녀의 연령과 미취학 자녀 등이 일-가정 양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김옥선과 김효선(2012)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변인들을 통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연령과 직종에 따른 일만족도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불만족도를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우울 변인 외에도 직장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른 요인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 심리적 문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할 수 있는 다른 매개요인들의 추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혼 직장여성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정신적 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능한 여성인력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수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는 인력 배치와 직장 내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함께 수행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개인과 가족 및 직장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일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일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어 나아가 개인과 집단 내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임·전희정(2013). 기혼여성의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구주 여부와 빈곤여부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33권, 161-188.
- 강영희(2016). 고학력 취업여성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만족의 결정요인 탐색, 젠더와 문화, 제9권 제1호, 101-129.
- 김강호(2009). 학력과 직업훈련 참여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1권 제3호, 123-151.
- 김수연·장세진·김형렬·노재훈(2002). 서비스직 근로자의 감정노동과 우울 수준.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4권 제3호, 227-235.
- 김순안·김승용(2011).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중년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52호, 109-129.
- 김일호·천희란(2009). 기혼여성의 직업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예방의학회지, 제42권 제5호, 323-330.
- 김영희(1992). 논문편 : 맞벌이 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 긴장에 관한 이론적 모델 연구 : 이론적 모델의 검증. 가족과 환경 연구, 제30권 제2호, 139-158.
- 김옥선·김효선(2012). 일-가정 상호작용에 대한 역할요구-역할자원의 접근.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제36권 제2호, 85-120.
- 김은정·오경자·하은혜(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제4권 제1호, 1-14.
- 김인숙·김병숙(2002). 직장여성의 경력개발 의식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제7권 제2호, 31-52.
- 김종우·최수정·김경인(2014)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분석 : 직무만족도와 학력·스킬불일치를 중심으로. 공업교육연구, 제33권 제5호, 133-156.
- 김태홍(2003). 여성정책포럼. 창간호, 20-26
- 류임량(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전이(work-to-family spillover)에 대한 연령계층별 차이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9권 제2호, 119-156.

- 민성길·남궁기·이호영(1990). 화병에 대한 일 역학적 연구. 신경정신 과학. 제29권 제4호. 874-876.
- 박 경(2004).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2호. 265-283.
- 박혜순(1990). 중년이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문주(2009).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학력효과에 대한 젠더 비교연구. 여성 학논집 제26권 제1호. 109-134.
- 손영미·박정열·전은선(2015). “한국, 일본, 영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족 양립관련 가치관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제21권 제2호. 253-277.
- 안윤숙·김홍주·이현진·하영진(2016).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요인, 직장요인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21. 제7권 제1호. 157-181.
- 연은모·최효식(2014). 유아의 기질,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유아의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제34권 제6호. 229-253.
- 오은진·민현주·김지현(2009).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취업선택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원. 제12권 제1호. 141-162.
- 유성경·임영선(2016).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여성. 제21권 제3호. 415-439.
- 이상곤·함영림(2014). 노인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자기효능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65호. 7-33.
- 이숙정·오재림(2010).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유효성, 직장 및 가정생활 갈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제1호. 7-39.
- 이슬기(2015). 기혼직장 여성의 성역할 태도, 일 만족도, 부부갈등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 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이은미(2012).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3권 제1호. 66-72.

- 이유진·김의준(2014). 기혼여성 재취업의 동태적 분석:고학력 집단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32권 제4호, 87-114.
- 이의철·김환철·정달영·김동현·김정훈·이동훈·임중환(2008). 일개 대학 병원 전공의의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련성. *대한 산업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76-377.
- 장재원·이준상(2013). 노인돌보미의 감정노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일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59권, 31-54.
- 정혜선·김혜영·이현경·이윤정·권영숙(2001). 취업 기혼여성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및 대처전략에 관한 구조모형.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10권 제1호, 93-109.
- 최수찬·김상아·전지영·박용섭(2008). 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진에 미치는 직업관련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9권, 5-31.
- 추상효·류현철·배규정·송재철·이수진·김인아(2010). 일부 은행업 종사자에서 감정노동과 우울증상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지*, 제22권 제4호, 316-323.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여성·출산력·아동
- 한선영(2013). 직장인 스트레스 분석: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탁영란·강현숙·김금순·박호란·곽윤희·최정례(2002).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 간호사와 교사 그룹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32권 제4호, 570-579.
- Blackmore E. R., Stansfeld S. A., Weller I., Munce S., Zagorski B. M., & Stewart D. E.(2007). Major depressive episodes and work stress: results from a national population surve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11), 2088-2093.
- Cordner G., & Scarborough, K.(2010). Information sharing: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policing with national and military intelligence. *Homeland Security Affairs*, 6(1). 1-19.
- Frei C., & Sousa-Poza, A.(2012). Overqualification: permanent or transitory?. *Applied Economics*, 44(14), 1837-1847.

- Girgus & Seligman(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05-422.
- Jonathan G. Sanrberg, Jeremy B. Yorgason, Richard B. Miller, and E. Jeffrey Hill(2012). Familt-to-Work spillover in Singapore: marital distress,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work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61:1-15.
- Kraaij V., Garnefski N., & Maes S.(2002). The joint effects of stress, coping, and coping resources on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erly. *Anxiety, Stress & Coping*, 15(2), 163-177.
- McCubbin H. I., Thompson A. I., & McCubbin M. A.(1996). *Family assessment :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Center for Excellence in Family Studies.
- Quick J. C. E., & Tetrick L. E.(2003).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pector P. E. (1997). "Job satisfaction: "Application, assessment, causes, and consequences" (Vol. 3). *Sage publications*.
- Yearwood E. L., & Siantz M. L. D.(2010). Global issues in mental health across the life span : challenges and nursing opportunitie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45(4), 501-519.
- McCauley & John(1958). Occupational Information." By Robert Hoppock (Book Review)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11(4) 648-650.

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in daily stress on depression : Difference of married working women's academic background

Choi Eun-Joo* · Kim Choon-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level of working women's academic background in daily stress affecting depression of them. Women in the workplace were selected from the data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2015), and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level of academic background : Under graduated high school(group 1), high school graduation(group2) and college or higher(group3).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level of daily stress, de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cademic background of the married working women. Higher academic ability results in lower depression and higher the job satisfac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differentiated among groups on influence that daily stress reaches depression. Specifically, the job satisfaction has shown partial mediating effect in only group 2, whereas there is no significant statistical effect in group 1 and 3.

Key words : married working woman, academic background, daily stress, depression, job satisfaction.

* Adjunct professor,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jchoia@naver.com)

** Professor, Dep.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ckyoung@knu.ac.kr)